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일보, 태왕 노기원 과거행적 '민낯' 파헤친다...



법원, 고흥무씨 주장 대부분 진실 노기원, 본지 기사 모두 허위사실 고흥무씨와 공모 비방 기사 게재 대구광역일보 명예실추 책임져야

'노기원 인격권침해' 파동이 새국면을 맞고있다.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가 대구광역일보를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노기원 소송은 신문사 명예실추

때문에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가 법원에 소송낸 본지 기사 모두가 허위라고 밝힌 내용을 조목조목 묶어 만인의 모범이 될 경영인, 더구나 사실상 공인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이 결핍된 검찰 공무원 시절 과거 행적과 거짓과 모순투성으로 일관된 그의 민낯을 연재물로 낱낱이 들춰낸다.

실제 본지는 지난 10일 임원들과 원탁회의에서 노씨가 소송내용에서 밝힌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일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병준(주)휴센타홀딩스 회장, 노기원-김수경 태왕이앤씨 대표이사 등 3명은 △고흥무는 본지 대표 김성용과 공모 △고흥무의 지극히 사적인 목적 달성 부분 등을 마치 사실인양 폭로 형태 △언론사 통해 알려 협상 수단 목적 △사실여부 전혀 확인 없이 허위 비방 기사를 게재했다고 명시했다.

본지 김성용 대표는 "노씨 등 3명이 낸 소송내용은 한마디로 신문사 '모독'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독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신문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결론 지었다.

본지 기사와 관련 제보받습니다 제보 전화 (053) 253-0000

노기원·김수경·박병준 소송내용

박병준(주)휴센타홀딩스 회장 등 3명은 본지 기사와 관련,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고흥무는 대구광역일보 대표 김성용과 공모,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 (주)태왕 등의 명예, 회사의 신뢰도 등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적었다.

노씨 등 3명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를 집중 부각, 본지 기사는 공공의 이해의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고흥무의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게재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본지 기사로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추가 기사가 게재되지 않는까 하는

마음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사내용과 관련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는 등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고흥무 주장 대부분 진실

법원은 대구광역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고등법원은 본지 기사와 고흥무가 제기한 고소·고발 내용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대구광역보는 언론기관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고흥무씨가 제기한 고소·고발 등은 외부에서는 쉽게 알지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일보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결국 고씨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사실상 진실"이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본지는 △(주)태왕, 조합 가입료... 조합원 가정 품비박산 △(주)태왕 노기원 대표 이사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 △태왕 노기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관련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 당했다 △고흥무-노기원 40년 지기 진흙탕 법적다툼 끝은...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정선까지 노서 수습의 대도박... △고흥무 태왕 노기원 사생활 폭로 전쟁 극치... 등 내용의 기사를 6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김성용 기자



수능 D-2...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대구 도착 수능이 이를 남았다. 11일 오후 대구수능상황본부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포항제철소 안전대책 마련하라"

경찰 소방 당국, 경북도와 포항시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 밝혀라

이들은 "포항제철소의 크고 작은 사고는 잦지만, 그 원인과 개선 결과가 지역 사회에 공유되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환경단체가 포항제철소를 향해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환경단체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사후정비가 관행으로 정착돼 현장의 상황을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 설비 투자는 등한시하고 예방 정비를 하지 않는 사후약방문식 사후정비로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사후 정비 근절하고, 예방 정비 정착해 제철소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목적을 높였다.

단체는 "포항제철소는 매년 사고 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포항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철소의 사후정비를 근절, 예방 정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 설비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과 관련,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난 폭발·화재 사고는 지진 같은 굉음이 잠든 시민들을 깨워 불안에 떨게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사후 정비 근절하고, 예방 정비 정착해 제철소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목적을 높였다.

이들은 그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환경과 안전,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포항제철소 환경개선-민·관·협' 의회를 구성, 2009년 폐쇄한 대구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를 부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경수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23일 2고로 주변의 화재로 2~4고로 가동이 중단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지난 9월 말에는 최근 대대적인 개·보수로 한 후 가동을 시작한 4고로도 쇠물 배출구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항제철소의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 항상 폭발과 화재를 동반하며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 왔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5조6174억 편성...

임종식, 내년 경북 교육정책 안정적으로 추진 늘봄학교와 교육 복지 등 미래 교육 투자

경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633억원(3.0%) 늘어난 5조617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도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 복지 등 미래 교육 투자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비를 통합한다. 일부는 기본 운영비로 전환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경감도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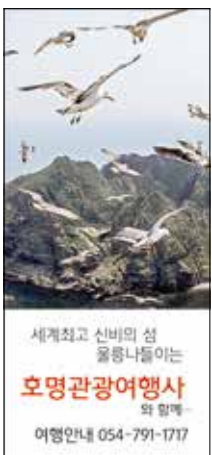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다.

내년 주요 사업 가운데 먼저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선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오름학교 등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76억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14억원 △고교 학점제 95억원 △교과교실제 87억원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26억원 △경북 미래학교, 경북 희망학교 등 교육과정 선도 학교 운영 10억원 △따뜻한 행복학교 26억원 △놀이중심교육과정 43억원 △경제교육 8억원 등 516억원을 편성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선 △AI 디지털 교과서 구매비 87억원 △전자차질관 113억원, 컴퓨터 165억원, 학생 스마트기기 96억원 등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520억원 △하내 전산망 구축 관리 79억원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190억원 △AI 정보교육 중심

학교, 채용고실구축 등 소프트웨어 교육 62억원 △글로벌 현장학습 14억원 △국제교류 활성화 1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1426억원 △학교 신중설 1515억원 등 394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을 위해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권 보호 10억원 △학생마음건강지원 6억원 △가정형 wee 센터 운영 6억원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원 △급식운영비 150억원 △학기 중·공휴일 급식비 지원 97억원 △누리과정비 1554억원 △4~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161억원 △교육급여 136억원, 수확여행 및 수련 활동비 188억원, 졸업앨범비 29억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459억원 △특수교육 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441억원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 교육 53억원 등 5109억원을 편성했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2일 오전 경산시에 있는 경북교육청 정보센터에서 경산권역 미래학교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석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12일 오전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군위군, 친환경농자재 지원 평가 우수상

군위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기관평가'에서 영예로운 '우수상'을 수상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토양

환경의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와 농협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평

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집행 실적과 함께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함량, pH),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성과 등을 평가했다. 박재성 기자



TK통합 설명회... “통합 완수할 골든타임”

30개 이상 기관 설명회 예정 대상기관 지속적 추가 확대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

대구시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군 설명회에 이어 11일부터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9개 구·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깊이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2차 설명회는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해 12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구·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2차 설명회는 11월 11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상공회의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원 등 대구시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12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향후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2차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에 속한 시민들에게도 그간의 추진 경과와 통합의 필요성, 특별법 주요 내용, 통합의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알리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심각한 인구감소 등 우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통합으로 수도권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며, 대구경북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달빛철도, 포항영일만 등에 기반해 교통·물류의 거점이자 거대남부경제권의 중심이며, 한반도 최대면적으로 수도권 절반 가격의 저렴한 산업용지가 많고,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와 수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이러한 대구·경북의 성장잠재력과 특별법에 포함된 245개의 산업·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재정분야 등 획기적인 특례가 연계된다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대구·경북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사·도민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시는 설명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는 점과, “성장과 쇠퇴의 기로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만큼 지금이 통합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최상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2045년에 GRDP는 1,512조 원으로 현재보다 8.4배 증가하고, 일자리는 773만 개로 현재보다 2.8배가 늘어나며, 사업체수는 236만 개로 현재보다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태용 기자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119'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흥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만규 시의회 의장, 대구시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이기욱 재즈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소방의 활약상을 담은 소방의 날 기념식 영상 상영, 대구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차난 개선...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15일 개장

올해 1월 공사 착수 10월말 준공 총 1만여㎡ 임시주차장 276면

대구시는 서대구역 앞에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을 오는 15일 개장한다.

시설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운영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맡아 관리한다. 이번 개장으로 시민들과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새로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주차시

실확증으로 인한 교통편의도모뿐만 아니라, 낙후된 역세권 주변 개발 활성화와 서대구의 발전이 이끌어낼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대구역 앞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당초 고물상, 모래 적치장, 창고용지 등으로 운영되어오던 오랜 기간 미개발된 도시계획시설이었으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깨끗하게 단장하여 역세권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공공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서대구역네거리에 조성한 광장(1개소) 및 주차장(2개소)은 2019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2년 보상협의 및 수용을 거쳐,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올해 10월 말 준공했으며, 사업비는 570억 원이 투입됐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의 관문에 위치한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공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며,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대구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달성군 '세천교' 개선사업 완료

달성군은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야간경관 명소화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0월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달성군은 올해 7월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관내 권역별, 요소별 알기 쉽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을 수립했다.군은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달성군 전역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물 등을 정비하고, 달성군만의 독창적인 빛을 연출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첫 사업, '달성군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 세천교는 다사읍 세천리와 매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야간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교육청, 늘봄학교 우수사례 교육부장관상

고산·달산·도림·수성초 등 4곳 선정 고산 늘봄학교 프로젝트 좋은 평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4년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초등학교 4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월)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모전에서 '초등 늘봄학교 부문' 전국 18개 수상 학교 중 대구는 △고산초, △달산초, △도림초, △수성초 등 4곳이 선정되어 대구 늘봄학교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고산초의 아이들

은 행복! 학부모는 안심! 고산 늘봄학교 프로젝트'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족하는 알찬 늘봄학교 운영으로 평가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달산초는 '다안아 달산 늘봄학교 1+1 꿈교실+원교실'을 주제로 놀이중심의 예체능, 학교적응을 돕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도림초는 '누리GO! 만족하고GO! 지속하고GO! 도림 늘봄학교로!'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으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회장 손경환 |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럽고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영주시 농업인, 道 농업인의 날 '농업인 대상'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진행된 '2024년 경상북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혜숙씨가 경북 농업인대상에 수상했다.

삼재배에서부터, 가공, 체험관광에 이르기까지 6차산업을 실현한 젊은 감각을 가진 선도 농업인이다. 예비 청년농업인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농업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았다.

이런 경상북도 농업인대상 청년농업인 분야 선정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장기 미실현 시·군 사업... '투자펀드' 방안 모색

상주서 투자펀드 시군 간담회 개최. 경전대 관광 개발 사업 등 논의. "민간 투자 활성화... 핵심 과제"

경북도와 상주시가 상주 경전대 관광 개발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지활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곳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심지이자, 상주시의 대표 관광코스가 있는 곳으로 낙동강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도남서원, 계절마다 새로운 자연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경천산,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등이 있다.

도는 이 지역에 호텔·리조트 등이 자리잡으면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더 풍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0년 개통 예정인 KTX 상주역은 서

울에서 상주까지 7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 당진-상주-영덕,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3개의 광역망과도 연결돼 대한민국 중심부에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도는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와 지원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경전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같은 대

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8일 상주시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군 간담회'를 열고 금융전문가를 초빙해 사업 구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상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됐다. 앞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영숙 도의원은 "상주시의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전대 관광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민간의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이 미흡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한 시군의 숙원 사업들을 이제는 투자펀드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APEC 성공개최... "글로벌 중심지 도약 기회"

APEC 성공개최추진위 출범식. 4개과 13개팀 55명으로 구성

경북도는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APEC 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지역 주요 기관 대표와 경제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PEC 준비 상황 보고, 위촉장 수여, 성공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한 APEC 성공개최추진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기관장을 비롯해 경제, 문화, 언론 관련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사·도의회 △정부 기관 △소통 협력 △경제 △문화·관광 분과 △인문·홍보 △의료·교육 등 총 8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기본 역할은 △APEC 성공개최의 기반확립 설정 및 제시 △APEC 준비 상황 평가와 현장점검, 주요 사안 자문 △APEC 추진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 협력 주도 등으로 2025년 1분기부터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989년 11월에 창립된 APEC은 아시아태평양 양경제협력체로서 현재 21개국 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다자간의 무역체제 강화와 역내 기업활동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APEC은 세계 GDP의 62.2%, 총 교역량 50.1%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의 지역 협력체다.

APEC은 정상회의,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 통상각료회의가 공식 행사로 열리고 이 밖에 APEC 고위관리회의, 기업인사문화회의(ABA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 성공개최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성공개최추진위원회가 긴밀히 협조해 우리 지역이 글로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출범식 행사 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추진 위원들은 APEC 준비위원단(경주민속공예촌에 위치)으로 자리를 옮겨 현판식을 열었다. 9월 23일 공식적으로 조직된 경북도 APEC 준비위원단은 김상철 단장을 필두로 4개과 13개팀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용찬 기자

경북 올해 수능 특별 교통관리 실시

교통경찰·모범운전자 579명. 대형오토바이 150대 등 투입

경북경찰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경북도내 수능은 8개 지구, 7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경찰은 원활한 수능을 위해 교통경찰·모범운

전자 등 579명과 순찰차 및 경찰대형오토바이 150대를 시험장 주변과 혼잡 교차로에 집중 배치한다. 또한 자차단체와 협조해 시험장 주변에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적과 소음을 방지하는 등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또 주요 혼잡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교

통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수송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일반 시민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주변 20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미리 하차해 도보로 입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도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전국 1위'

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역 특색 경북형 도제 성과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최종 취업률 69.5%(전국 평균 55.3%)를 나타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된 직업계고 취업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엔 함께 발표된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6%(전국 평균 48.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 분야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시대 변화와 수요 요구에 맞춘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 등을 통한 지자체 협력 교육 모델 마련 등이 가능했으며, 그 중심에 경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 featuring a family photo and a list of 100 projects. The text includes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and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포항시, 겨울철 한파 대비 행정력 집중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회의 겨울철 기상 전망 대해 공유 한파 쉼터 619개소 운영·점검

포항시는 11일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겨울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설과 한파 피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전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도로시설과 등 13개 관련 부서 및 해병대 제1사단 등 8개 유관기관 등 총 21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각 부서의 기관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겨울철 자연 재난 집중 대책 기간'에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계획'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대설·한파 등 예측 불확실성으로 기상특보 발령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기록적인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시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 강화, 대국민 집중 홍보 실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총괄 대응을 위해 계량기·수도관 보온 조치 및 농축수산 시설 사전 점검 및 피해 예방조치 강화를 실시한다.

또한 겨울철 취약계층인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한파 쉼터 619개소 운영·점검 및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방풍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기상정보 및 제설·통제·피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으로 겨울철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전파해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결빙 취약 구간인 고갯길, 도로 등은 제설제를 사전살포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필수 시설인 가스, 상수도, 전기 등에 최우선 복구를 추진해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 및 시설복구를 지원한다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유관기관과 현장부서 간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



협정후가 발견되면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시민들은 강설 및 한파가 예상될 때에는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자율방범대, 어울림 행사

제22회 경주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다짐대회가 지난 10일 의동생활체육공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단결을 도모하고 서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식전 공연이 끝난 후 각대 회기 입장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 우리의 결의, 선수대표 선서, 어울림 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36개대, 1200여 명으로 구성된 경주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순찰, 골목치안, 비행 청소년 계도 등 생활밀착형 방법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현하 대장은 "35개 읍면동 방범대가 하나 돼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율방범대에서도 방법순찰, 질서유지 등의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금북주, 청송에 천만원 기탁

청송군은 ㈜금북주가 지난 7일,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참소주'로 대중에게 익숙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인 ㈜금북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윤경희 이사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금북문화재단의 지역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울진,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울진군은 지난 9일 2024 울진군 청소년 풋살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초·중·고 25개교에서 모인 58팀,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가을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선수들의 힘찬 함성 덕분에 추위도 잊을 수 있었다. 특히 개막식에서 진행된 선수 선서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선수 두 명이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풋살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긍정적인 경기정신을 보여준 이들의 선서 장면은 큰 박수를 받으며 대회의 시작을 빛냈다. 풋살장에는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함께하여 선수들을 응원했다. 순수 준비한 응원 피켓을 든 친구들의 응원과 지니들이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응원하는 부모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온 기쁨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기울철 농촌 일손돕기 한창
청송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기울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고령자, 부녀자 단독농가, 장기입원환자 등 특히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실과원소 및 읍면 공무원 등 160여 명이 투입되었다. 윤병문 기자

포항시 연일읍, 부조장터 실크로드 탐방

400여명 읍민들 함께 참여해 옛 보부상길 왕복 4km 도보

포항시 연일읍민들이 하나 되는 '제11회 연일읍민 화합 부조장터 실크로드 문화탐방'행사가 형산강 에코전망대 일원에서 9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연일읍개발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19년 행사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5년 만에 다시 개최된 만큼 400여 명의 많은 읍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읍민들은 형산강 에코전망

대에서 출발해 형산강 야외물놀이장까지 부조장터 옛 보부상길 왕복 4km 구간을 걸으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는 연일읍 복지회관 하모니카 공연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난타, 민요, 지역 가수 축하 공연 순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깊어져 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연일읍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졌다.

최병국 연일읍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연일읍민들이 하나되어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연일읍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적극 발굴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 인구 확대 관련 지정 권한 지자체장 이양

영덕군은 지난 9월 26일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



영덕군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적극 발굴

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산 경청 청장년, 백미 기탁

경산 경청 청장년면협의회는 8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쌀 20kg짜리 20포를 기탁했다.

경청 청장년면협의회는 경산, 청도 지역의 기록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매년 농촌 지역 봉사활동과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명신광 회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쌀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광희 동부동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경청 청장년면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주두레봉사단, 환경 봉사

성주두레봉사단은 지난 11월 10일 월항면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두레봉사단 회원 20여명은 집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집안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고 목은 때를 닦아내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성주두레봉사단은 4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주거개선사업, 물품후원, 무료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주는 성주두레봉사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가야왕릉길 걷기... 고령 가을 정취 만끽

지산동 일원 6km 걷기대회 열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 더해
고령군보건소 건강 부스 큰 호응



고령군은 9일 오전 9시,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2회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이자 세계유산에 빛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배경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을 출발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을 따라 주산으로 내려오는 약 6km의 코스를 완주했다. 걷는 내내 참가자들은 대가야의 유구한 역사를 몸소 느끼며, 고령의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걷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새살림봉사회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고령소방서의 안전체험부스, 고령군보건소의 건강UP체험부스는 참가

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강혜연과 지역 가수 최비송의 축하공연은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경품추첨 이벤트로 참가자들에

게 설렘과 즐거움을 더했다. 고령군은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는 단순한 행사보다, 고령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알리고 군민들이 함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

은 자리"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고령군이 더욱 사랑받는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영백 기자

경산시, 직원 중심 조직문화 개선 소통 간담회

직원들 연령대별 조 편성 조직별 정기 소통 확대 등

경산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중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시정을 위해 애써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장과

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평소 시장에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조직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연령대별로 조를 편성하고, 건의사항 및 질문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여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

경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조직별로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해 직원들과 시간 간 거리감을 좁히고, 직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러한 소통이 시청 조직문화 성숙에 기여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농촌일손돕기 봉사

칠곡군의회가 지난 8일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터치 운동'의 일환으로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명면 봉암리 농가를 방문하여 콩 수확 및 타작 작업을 하는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상승 의장은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영천 '경북도 농업인의 날' 농업명장 2명 선정

청암농산·대영농원 대표 기술교육장 운영비 지원

영천시는 지난 11일 '경북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명장에 장현기 청암농산 대표(자양보현), 농업인 대상 축산부문에 우지원 대영농원 대표(청통 애련)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업명장으로 선발된 장현기 대표는 영천담수변구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사과 단일 생산자 최대규모인 18ha를 조성해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산물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계속해서 13ha의 사과를 유기 재배함으로써, 시대의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농업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농업인 대상 축산부문을 자치한 우지원

대표는 독감백신 제조용 무균관을 공급해 신종플루 조기종식 기여, 국내 최초 직립식 케이지 인공수정 사양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종란 생산을 통한 전국 양계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산란계 계열화를 통한 국내 양계농가 안정적인 병아리 수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업명장과 농업인 대상은 오랜 영농경험이 오늘날의 유기 재배의 가치와 소비성향을 예측하고, 농업 기술을 끝없이 적용하고 발전시켜 결국 본인만의 기술로 만든 결과"라며 "수상자의 기술이 많은 후계농, 청년농들에게 전파돼 찾아오는 부자 농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 농업명장, 농업인 대상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우수 농업인을 발굴해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최은하 기자

청도중앙초, 인문학적 역량 기르기 문학기행

아동문학가 권정생 생가 등 방문 대표 씨족마을 하회마을을 찾자

청도중앙초는 7일 '독서문화 체험을 통한 인문학적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문학기행은 '강아지똥', '몽실 언니'의 작가인 아동문학가 권정생 생가와 병산서원, 하회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안동 일직면 조탑리에 위치한 권정생 생가 주변에는 권정생 선생이 종지기로 근무했던 일직교회와 안동조탑리 오충전탑이 위치해 있다.

권정생 작가 생가를 둘러본 뒤에 풍산 유씨의 교육기관인 병산서원을 방문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우리 나라 대표적인 씨족마을인 하회마을을 방문하여 전통 한



옥과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 문화에 관심이 많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김OO는 "권정생 작가의 생가를 일주러 찾기에 는 거리가 부담스러웠는데 학교에서 마침 이런 문학기행을 추진하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학부모 이OO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여은 기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예금 [대면] 전국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개인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고향군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문경시 맞춤형 발전 우수시책 사례 탐방



문경-영남사이버대 MOU

문경시는 지난 8일, 영남사이버대학교와 과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경시민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영남사이버대학교의 홍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경시민은 영남사이버대학교 입학시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남사이버대학교는 2000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등 8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시민은 또 하나의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어 다양한 배움의 경로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상주 함창·이안, 창단

해병전우회 상주시 함창·이안분회는 11월 8일 함창읍 도농교류커뮤니티센터 3층 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

함창·이안지역 해병대 출신 전우들이 모여 만든 해병전우회는 해병대의 명예와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조직했다.

강대웅 초대 회장은 "전우회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인 자리매김하겠다"고 창단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문준하 함창읍장은 "해병전우회 함창이안분회 창단식을 축하드리며, 해병대의 자부심과 끈끈한 동지애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 일대서 워크숍 개최 통영 케이블카·디피랑 등 견학 "우리 지역 실정 맞춰 접목 노력"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상남도 통영 일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통영 케이블카와 디피랑 등 타 도시 우수시책 사례를 견학하고 문경의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첫날은 통영의 케이블카 체험 후 특강과 세미나를 실시했고, 저녁에는 디피랑을 방문하여 야

간경관조명의 선진 견학지를 탐방했다. 둘째 날에는 통영 산양스포츠포크크와 전통중앙시장 등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수집·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제10기가 새롭게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황선용 의장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가까이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지역발전 아



이디어들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신현국 시장은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한분 한분의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 지역에 대

한 관심과 열정으로 시정발전의 큰 힘이 되어 가고 있다"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미시 마이스터멘토단, 농촌가구 생활 편의 지원

구미전자공고 교사·학생 등 82가구 거주 송곡1리 지원

구미시 마이스터멘토단이 지난 9일 해평면 송곡리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마이스터멘토단원, 금오공업고등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경

북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번 활동은 매년 반기마다 진행되는 농촌마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82가구가 거주하는 해평면 송곡리를 방문해 전기안전 점검 및 전기배선 수리, LED 조명 및 콘센트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홀로 지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마을 회관과 경로당의 환경정비, 마을 봉사 등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심일섭 마이스터 멘토단장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이스터멘토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태란 노동복지과장은 "숙련된 기술인들이 농

촌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구미시에서도 기술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0월 창단된 구미시 마이스터멘토단은 현재 4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문 기술인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송명주 기자

김천,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 모집

대기오염 원인물질 감축대책 사업장당 1개 배출구 기기 지원

김천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원인물질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11월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조기모집한다.

시는 1억8백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장당 1

개 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미지원되는 나머지 미부착 배출구에도 반드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 18:00까지 김천시 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민 환경위생과장은 "4·5종 대기배출사업장들의 부차 기한(2025. 6. 30.)의 준수를 돕는 마지막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군 봉양면, 영양등뿔 반찬지원사업 마무리

1년 동안 총 8회 걸쳐 취약계층 30가구 대상

의성군 봉양면은 지난 7일 봉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영양등뿔 반찬지원사업"이 1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영양등뿔 반찬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거나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8회에 걸쳐 각 가구에 국과 밑반찬을 포함한 식사세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1년 동안 매 회차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이



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과 식생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순복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김천시, 대학생 대상 마약 퇴치 교육·캠페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협력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마약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는 지난 8일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김천교육지원청, 경북보건대학교와 협력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퇴치 교육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율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전문 교육은 마약의 위험성, 중독성, 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마약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청년층이 마약 문제를 경각심 있게 바라보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마약 없는 안전한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봉화, 한문철 변호사 특강

봉화군은 지난 8일 봉화군청 소년센터 공연장에서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라는 주제로 2024년 제3회 봉화야카데미를 개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대표로 SBS '맨인블랙박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처법,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렸다. 특히 도로 위 농기계 교통사고와 동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사항도 함께 다뤘다.



영주 가흥2동 적십자, 환경 봉사

영주시 가흥2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9일, 가흥2동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환경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가흥2동 적십자봉사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마을 입구와 주변 도로 사면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무단투기와 청소 사각지대에 놓인 쓰레기들을 일일이 수거하며, 참가자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다.



봉화새마을회, 환경 운동

봉화군새마을회는 지난 7일 봉화상설시장에서 '2024년 새마을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을 환경살리기 운동은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를 모아 자원화하고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읍면별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 사진을 행사장에 전시해 새마을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만든 친환경 세계 및 비누, 텀블러 등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기영 회장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살리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정한 봉화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군-베트남 'K-베트남밸리' 사업 성공 협력

郡 우호교류대표단 베트남 방문
화방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해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식 진행
K-베트남밸리 사업 포럼 참석

봉화군 우호교류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베트남과의 교류 기반을 다졌다.

먼저 봉화군과 베트남 다낭시 화방현이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양측 간의 상생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봉화군은 지난 8월 17일 화방현 첫 방문을 통해 우호 교류의 기반을 다진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 상호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봉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양 도시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짧은 기간 내 다시 만나 우호를 다지고 협력을 공식화하게 된 것은 양측이 상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의향서를 통해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류가 봉화군의 이름을 베트남 중부에 널리 알리고 K-베트남밸리 사업을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을 통해 화방현에서 봉화군으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해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



봉화군과 베트남 다낭시 화방현이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봉화군은 앞으로 계절근로자 교류가 양측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듀이탄대학교의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주한 다낭총영사관에서 강부성 총영사를 만나 K-베트남밸리 사업을 알리고 자문을 구하며, 베트남과의 협력 사업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받았다.

아울러 봉화군 대표단은 국제 자매도시인 프선시의 신임 당서기장과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 도시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 취임한 지도자들과 봉화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봉화군은 'K-베트남밸리' 사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도 참석해 사업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K-베트남밸리의 미래 구상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북연구원은 AI 활용 프로젝트와 이장발 사례를 통해 K-베트남밸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부산가톨릭대 박순교 교수는 봉화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베트남 Ly 왕조의 역사적 유산을 통해 봉화군의 국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경북테크노파크 류종우 연구원은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현황과 양국 대학 간 인적 교류 방안을 제안하며 인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화방현과의 의향서 체결과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 듀이탄대학교 방문, 주한 다낭총영사관 방문, 프선시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봉화군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의 역할을 한층 높였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 협력을 통해 K-베트남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파트너로서 상호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어르신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행사

싱싱고향별곡 진행자 강사 참여 특강과 함께 마음나눔 공연 진행

영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일 입암면 문화체육센터에서 입암면 노년층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암면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증진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TBC 싱싱고향별곡의 진행자로 유명한 기용아재가 강사로 나서며, '당신이



살아온 삶이 최고의 감사이자, 기적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참여자들에게 삶의 감사함을 되새기고 긍정적인 정서를 고취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프로그램은 특강과 함께 마음나눔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소통

과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당일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상담 부스도 운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불안, 외로움 등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치매 예방 인지강화 체험과 혈압-혈당 측정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예천군, 발레&댄스 공연

예천군과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예천군문화회관에서 발레&댄스 공연 '비트온포인트' 공연을 개최한다.

'비트온포인트'는 2024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연으로, 린던 웨스트엔드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된 바 있는 작품이다. 이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렉터 제니퍼 마스터스(Jennifer Masters)가 기획하고, '마스터스 오브 코레오그래피(Masters of Choreography)'가 선보이는 혁신적인 발레&댄스 공연이다.

'비트온포인트'는 스트리트 댄스와 발레,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독창적인 안무와 수준 높은 댄스는 물론 코미디 요소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텝 넘치는 무대의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영주 기자

영주 CCTV 관제센터, 안전 사고 예방 활약

올 해 총 3천 500여건 발견 등산로 스마트 안심 돌레길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올 한 해 동안 3천 500여 건의 사건·사고 현장을 발견하는 등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이 같은 성과에 이어 시민들이 인적이 드문 등산로와 산책길, 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산책길 스마트 안심 돌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길 조성'을 목표로 구수수산(가흥동) △뚜껍바위(휴천동) △약수봉(이산면) △철탄산, 성재(영주동, 상망동, 하망동, 가흥동) △시청 뒷산(휴천동) △용암산(안정면) △장군봉(봉현면) 등 7개 등산로 16개의 출입구에 '등산로 산책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

화한다는 계획이다.

'등산로 산책길 범죄예방 시스템'은 등산로와 산책길 입구에 비상벨과 안내 QR 코드를 설치해 비상벨을 누르거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CCTV 통합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휴대전화로 QR 코드 스캔 후 전화번호 입력 및 영상-위치 전송을 동의하면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 및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메시지'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화면 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CCTV 영상이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되며 경찰서와 소방서에 즉각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등산로, 산책길과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던 장소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 동거 범죄의 우범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등산로와 산책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한국내방가사보존회 '내방가사 경창대회' 개최

안동시민회관 대동관 낙동홀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 등재

사단법인 한국내방가사보존회는 안동시민회관 대동관 낙동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내방가사를 발굴하고, 내방가사 전승과 보존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이어온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개최한다.

11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25회 전국 내방가사 경창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내방가사보존회와 국립안동대학교 글로벌사업단이 주최하고 한국내방가사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시가 후원한다.

경창대회에는 창작 부문 50여 작품과 낭송 부문 70여 작품이 출품돼 서로 기량을 겨루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가상, 특별상이 부문별로 주어지고 창작과 낭송 부문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한다.

11월 28일 오전 11시에는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 4층 특별전시실에서 '담장 넘는 내방가사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내방가사보존회 창립 기념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는 내방가사보존회원들이 소장한 '오륜가, 백발가' 등 1940~50년대 내방가사 작품과 함께 회원들의 내방가사 주요 작품 50~60점이 한지 두루마리 형태로 출품돼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옛이야기와 함께 현재 모습과 내방가사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내방가사보존회 창립 기념 전시회'는 11월 28일(목)부터 12월 27일(금)까지 1개월 동안 열리며, 소실돼 가는 내방가사의 명맥을 살리고 기존 향유자와 학생, 젊은이 등 미래 세대 전수자에게 내방가사의 문학적성과 가치 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내방가사는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내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

'안동내방가사보존회'를 계승해 지난 8월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내방가사보존회'는 기존 회원과 함께 소멸 위기에 처한 내방가사를 발굴하고 가사 문학의 지면 확대와 여성 문화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송영주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